

하라 성터(原城跡)

하라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약 9만 년 전 150km 동쪽 아소산(1,592m) 분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대 분화에 의한 고온 가스, 재, 쇄설물이 상당히 멀리까지 비산되어 지금의 아리아케카이에 갑자기 융기한 것처럼 보이는 산등성이 같은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이후 17세기에 전혀 다른 대참사의 무대가 된 곳입니다.

하라 성은 1604년 기독교인 아리마 하루노부(1567년-1612년)를 영주로 하는 아리마 번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무렵 기독교는 1549년 일본에 전래된 직후였지만, 이 지역 지도자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이 개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파멸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1614년 기독교가 금교되었고, 300년 가까이 이 땅을 지배하던 아리마씨는 1616년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영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라 성은 폐성되었습니다.

새로 온 영주는 잔혹한 기독교 탄압을 시작했고, 북쪽에 새로운 성을 짓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기근과 중노동에 시달린 농민들은 1637년에 잇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마바라반도 인구의 대부분이 무장하여 들고 일어난 시마바라·아마쿠사 잇키입니다. 영주를 잃은 무사와 아마쿠사 제도에서 온 기리시탄 농민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16세의 아마쿠사 시로의 지휘 아래 새로운 영주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몇 번인가 패배한 후에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3만 7천 명의 반란군은 폐성이 된 하라 성으로 들어가 이곳을 최종 결전지로 삼았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규슈 각지에서 12만 명이 넘는 막부군이 동원되었지만 반란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의 겨울이 지나고 도쿠가와 막부와 네덜란드 배에 봉쇄되면서 반란군의 식량과 탄약은 다 떨어졌습니다. 1638년 4월의 마지막 공격으로 성은 파괴되었고, 수 천명의 반란군이 처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반란군을 추모하는 위령비, 성의 토대, 아소산의 하얀 속돌만이 남아 있습니다.